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 럼

제도수정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다. 급기야 매주 전국 체육관 집회를 시작하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핍박은 더욱 거세졌다. 좌절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그 무렵,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빼내어 해외로 보내셨다. 그것이 2000년의 일이다.

2000년 인도네시아 집회를 기점으로 나는 남미대륙에 복음의 바람을 일으켜 스페인어권에 갈보리 깃발을 휘날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권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복음의 길을 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세계를 매주 밟듯 다니며 마침내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때론 제도수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을 때, 적성에 맞지 않아 삶이 고달플 때,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될 때다. '한 우물을 파라'는 옛말이 옳은 말이지만,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야 옳지 않겠나.

나오미의 가족은 흥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쓰리과부가 된다. 그때 나오미는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기로 결정한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의 결정은 옳았다. 거기서 며느리 루이 귀인 보아스를 만나 부유한 삶은 물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대복을 받는다.

제도수정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들인 것에 미련을 두면 절대 제도수정은 못한다. 실제로 그동안 들인 수고와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짐에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때론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부모와 친척을 뒤로 하고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남의 눈을 의식해서도 안 된다. "아휴,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해서 언제 일어나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라.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도전 없이 성취는 없고, 모험 없이 희망찬 미래는 없다.

제도수정, 그것은 당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결단하라.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 속에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행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행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환경에 놀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코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다.

"탄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만 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다."

"인생은 멋진 것이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나는 고급 승용차와 명품 옷을 걸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회 선배의 조언을 듣고 바로 나를 뜯어고쳤습니다. 허름하고 평범한 양복에 왕진가방을 들고 가난한 성도들의 집을 심방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성공한 목회자들이 만났었다는 황지의 토레이 신부를 찾아가 목회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일주일 내내 노동을 시키더니 마지막으로 차를 한잔 대접하며 '흠은 속이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흠은 속이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목회 내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비를 들고 거리로 나가 노방전도에 매진했습니다. 결코 거저 이룬 결과가 아닙니다. 해외집회는 또 어떠했습니까? 물설고 낮설은 지역에 가서 전도집회를 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현지 목회자들뿐 아니라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무더위와 싸우고 빈대에 물리며 가스를 마시기도 하고 KGB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재판 받고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순간에 오로지 의지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고, 하루 7시간씩 집회의 성공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요, 그



'흠은 속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던 토레이 신부와와의 만남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해가는 주체가 바로 인간 자신임을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다. 목사님의 이런 집언들이 힘을 갖는 것은 목사님 스스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자신과 싸워온 삶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믿는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개척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사진으로 보여주시며 목사님의 목회사역 자체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와 함께 한 역정(歷程)이었음을 간증하셨다.

"나는 목사가 된 후 오로지 목회 성공을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개혁했습니다. 청년

(갈6:7)는 말씀이나 이제는 내 목회 철학이 된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말씀은 공히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반드시 피땀 어린 노력이 수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삶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 8년 만에 도전한 메인스타디움집회를 위해 나는 6개월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땅끝예수전도단 사무실에 철 침대를 갖다놓은 채 거기서 침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집회 광고를 위해 4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전단지를 서울 거리에 뿌리다시피 하며 우리 성도들은비디오장

들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한 것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꿈같은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단과 성도들을 위해 쉽 없이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대가 아니라면 다음세대, 그다음세대를 넘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진실을 아뢰며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자만이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5~20)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遺皮 人死遺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입은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가 생각해보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명제는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를 얻고자, 더 큰 권력을 얻고자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요, 권불십년(權不十年)입니다. 인생 자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벧전1:24).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육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진정 가치가 있을까요?

인생은 일생(一生)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히9:27)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행한 대로, 살아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옵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14:8). 우리의 일생을 오직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법이요, 옳게 사는 법이요, 가장 득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롭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 중의 가장 으뜸은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할 일, 곧 사명(使命)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다시 말해 권세와 능력이 왔으니 그것으로 나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단연 으뜸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막1:38),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다음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막3:14). 교회의 사명 역시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패역한 이 시대를 참고 계시는 줄 압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롬11:25). 아직 구원받을 백성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 외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그 들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건지사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면서 한 일은 오로지 구령사업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갖는 특권, 곧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해서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라고 가르치고 다닙니다. 그것에 확신을 보이기 위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지 않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아들딸이 있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도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

과 같으니라”(롬10:14~15)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듭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고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가 받을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너무 추상적이라

실감 없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며 일생을 전도의 일에 매진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고 했습니다. 그날에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날에 상이 없다면 지금처럼은 안 삽니다. 조금 쉬고, 조금 편하게 묵회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받을 면류관, 그리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는 약속을 온전히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세에만 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백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10:29~30).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되 헌신의 백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못합니까?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뿐이다

여러분, 사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완수하지 못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그 화가 뭘 줄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숫군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죄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겔33:2~4). 전하지 않으면 죄 값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포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달려가 그 아이를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전하세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세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곧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날 후회하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날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영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피터 린치가 말하는 투자의 모든 것

그동안 몇 차례 피터 린치의 투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투자대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주식이 가장 훌륭한 투자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축이나 채권도 재산을 늘리는 좋은 수단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요. 반면 주식은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가 권하는 초보들을 위한 투자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 뒤 장기 보유하라는 것입니다. 무려 8년 연속 S&P지수를 앞서는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 자신도 주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가에측을 노력하기보다 망하지 않을 좋은 기업을 골라 주식을 산 뒤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과연 장기보유가 가장 현명한 투자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1980년대 대세상승기에 있었던 5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증시가 개장한 1,276일 중 투자수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은 단 40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실 투자자가 이 짧은 기간 동안 투자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률은 4.3%로 채권 수준에 그친 반면,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연평균 2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가의 바닥과 최고치를 예측하려고 하면 집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장기보유전략이 가장 좋다고 충고합니다. 문제는 '장기투자과정에서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그는 투자자의 99%는 이런 손실회피성향을 극복하지 못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주로 주가 등락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는 것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터 린치는 신중하게 선택한 투자 포트폴리오라면 대개 6개월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우선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주식은 이익과 비교할 때 주가가 여전히 매력적인가?' 또 하나는 '이 기업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상황이 더 좋아졌다면 투자를 늘려야 하고 상황이 나빠졌다면 줄여야 하지요. 상황에 변함이 없다면 이 경우는 투자를 유지할지, 이 주식을 팔고 좀 더 매력적인 다른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중요하지만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며 투자에도 성공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새로운 곳에서 새 마음으로



새 집에 이사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중고등부와 대학부는 노랑진에 위치한 새 교육관에서 매주 토요일에배를 드린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참석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전셋집을 전전하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기쁨은 모두가 매한가지, 이곳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승 목사와 대학부 신혁주 전도사를 만나 앞으로의 다짐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먼저 이현승 목사는 "이전에 총회장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고 물으셨을 때 파이프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신앙의 정수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파이프가 되어 중고등부를 통해 제2의 이초석 목사님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의 목표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을 통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검을 가지고 부흥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또한 목사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부 신혁주 전도사는 "대학부는 첫째, 겸손한 대학부, 둘째는 섬기는 대학부, 셋째 순종하는 대학부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1세대 믿음을 이어받으면서도 그분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나 자리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대학부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먼저 올해 안에 우리 대학부가 이 교육관을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교육관이 젊은 영혼들로 차고 넘쳐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부모가 아이에 맞는 옷을 사주는 것처럼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학부와 저의 목표입니다. 떠난 영혼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영혼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받아들이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예수중심교회의 장래도 이들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분발하여 주기를,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기를 기도한다. 아울러 젊은이의 기백과 도전,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이 넘치는 중고등부와 대학부가 되길 바란다.

신묘수 전도사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라!



서울예수중심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4월 8일, 이시대 목사님은 새로 이전한 노랑진 교육관에서 서울 교역자 교육을 실시하셨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활동이 위축된 교역자들에게 돌과구를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세상은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적자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과 사업체와 교회는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싸워 이긴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이 환경과 싸워 이겨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식당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배달로 승부를 걸어 흑자행진을 하고 있고, 모 항공회사는 여객기를 화물운송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수익

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JC아카데미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대론 안 된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통에 번쩍 정신이 들어 생각해보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게으름을 합리화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즉시 실행하여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JC아카데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원격화상프로그램 ZOOM을 이용하여 구역예배를 활성화하십시오. ZOOM은 원격회의시스템을 말하는데, 구역식구들이 화상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이길 대안이니 활용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들께 상황을 보고하세요. 세상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퇴출당하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부터 이 물을 적

용할 겁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픈 것은, 내가 우리 교단의 최고의 목사, 최고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우리 교단의 여러 목사, 전도사 중에 내가 최고의 목사, 최고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도 있고,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최고가 되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진보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교육을 받는 성도들을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련된 서적과 신문, 그 외에 성공자들이 쓴 책들을 많이 읽으세요. 욥기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은 망매(茫昧)하니 앞서 간 자들이 경험하고 터득한 것들을 책으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성도들을 가르칠 것 아닙니까? 총회장 목사님도 지난 설교 때 성공한 목회자들에 관한 책을 다 섭렵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독교적은 물론 많은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법입니다.

니다.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목사요, 최고의 전도사가 되는 길은 우리 교단에서 최고로 노력하면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결랑 침대 밑이나 책상 앞에 '나는 우리 교단의 최고의 목사다, 최고의 전도사다.'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먼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공부하십시오. 입다나 나오미나 에스더..., 딱하기대 할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노력하여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셔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이 실천이 예수중심교단 제2의 부흥과 도약을 꿈꾸게 한다.

신묘수 전도사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년 차 연극배우입니다.

저는 20대에 처음 연극을 시작하면서 어떤 것이 죄인지 모른 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고자 하는 목표는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제 영혼이 파괴해지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팬들도 생기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거만해졌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연극과 뮤지컬을 병행하며 하고 싶은 작품과 배역을 해왔습니다. 다 작배우였죠. 극단에 들어가서도 막내였던 저는 오디션을 통해 앞선 선배들을 제치고 하고 싶은 배역들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결과가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극단에서 4년 넘게 지내면서 모든 오디션에 합격했고, 주인공 위주의 비중이 큰 배역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헬릿>이라는 작품의 오디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작품 오디션 역시 당연히 불을 줄 알았고, 헬릿이라는 배역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제가 보는 오디션마다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디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표님과 연출가님, 형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졌고, 점차 무대 위의 삶도, 무대 아래의 삶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무대에 오르는 동기를 찾기 위해 잠시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무작정 국토 종주를 떠납니다. 부산 오륙도에서 출발해 최북단 통일전망대까지... 23일 동안 하루에 평균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저는 입시 때 현대무용을 배우다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 연골판이 어느 정도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무릎으로 국토 종주를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고 완주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걸은 지 이틀 만에 무릎에 통증이 와서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오랜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이 이렇게 아프지만, 꼭 완주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랜만에 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

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믿음이 연약했기에 느끼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국토 종주를 하다 보니 처음 보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걷기 7일째 정도 되었을까 편의점 앞에서 짐을 내려놓고 땀에 찬 양말을 말리며 쉬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초코파이와 생라면, 그리고 믹스커피를 타서 두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봐요~”라는 인사를 하고 떠나십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또 보자고 할까?’ 참 의아했습니다. 이 아저씨를 시작으로 어떤 식당 아주머니는 아예 음식값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교회 다니니?”, “네.”, “의미 있는 여행하는구나, 밥값은 안 내도 돼.”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전 기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이 뒤로는 지금까지 식전 기도는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또, 소풍 나온 가족들이 돛자리를 펴고 나들이를 즐기고 있는데 지나가는 저를 부르더니 붙잡아 앉히고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중에 계신 한 아주머니가 빵과 음료수를 가득 쟁겨 주시며 ‘살면서 힘들면 지금 힘든 거 생각하면서 버텨! 파이팅!’ 응원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뭔가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종주를 시작했을 때는 나의 고민에만 빠져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낮은 청년에게 거리낌 없이 선의를 베푸던 사람들 덕분에 그동안 긴장하고 가뒤편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허물어진 마음의 틈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6일째 되는 날 밤에 온몸에 통증을 느낀 채 숙소를 향해 걸으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답답한 마음에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이 다 나잖아. 걸으면서 널 도와준 자들이 다 나야.” 섬광처럼 지나간 그 말이 어디서 울렸고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난 들었고 느꼈습니다. 0.1초 만에 가슴속에서 퍼지는 말, 이때 저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주저앉아 큰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껏 오면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처음 만났던 아저씨가 헤어질 때 또 보자고 했었는지 조금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17일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자연들을 보며 감탄하고 찬양하며 정말 신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23일 만에 완주하게 되었고, 저의 모든 것은 변해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면 사람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을 알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다시는 피폐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름도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요셉’이라는 귀한 이름으로요. 이때가 30살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국토 종주를 마치고 연극배우로 돌아와 다시 가장 작은 역할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러던 중 2017년 크리스마스 성극 팀에서 <사도 베드로>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에 감사했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는 아주 작은 역할과 연기 지도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선 저를 그 성극에 주인공인 베드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지 않던 내가 이렇게 큰 배역을 맡았을 때 회중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베드로의 마음에 점점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마음은 저의 마음이 되어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면 아직도 털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돋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닌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서 와락 안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만지고도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손을 잡고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시몬이 제 이름이 되어 들립니다. “요셉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전 어렵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종주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배역을 하면서 저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극이 끝나고 난 뒤 저는 서울청년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극단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께선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이라는 큰 무대에 부족한 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이와 상황으로 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지금은 지역장이라는 큰 직분을 받아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릴 뿐입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 이요셉

사연

20대 때 포털 사이트에서 고민 상담 글을 쓰며 나름 지식인으로 활동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세상엔 참으로 여러 많은 사연들이 있음을 느꼈다. 특히 청소년 상담 글을 올릴 땐 안타까운 적도 많았고, 위험에 처한 아이들도 있어 관련 기관 번호를 알려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이들의 고민을 계속 접하다 보니 오히려 나에게 우울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글을 멈추었다.

곧 40대를 바라보는 요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사연을 얘기하고 싶어 하고, 모두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원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얘기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이나 아픔을 들어주기 원한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고, 또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말에 누군가 귀 기울여 줄 때에는 여러 긍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난다.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위안과 평안을 받기도 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마음속 공허함이 생긴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그 공허함이 바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다.

주님은 당신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아픔을, 외로움을, 모두 알고 계신다. 당신이 목 놓아 울 때 당신을 꼭 안고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분의 평안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도우심으로.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물으신다. “요즘 네 마음은 어떠니?”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